허술한 응급구조체계 사람 잡는다

구급차 환자 이송하다 119에 SOS '황당'
곡성서 전문 의료진 동승 안해 환자 사망

병원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응급처치 장비를 활용할 전문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아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맡고 있는 일반 병원 구급대 인력이 부족한데다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응급구조 시스템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차가 도움 요청, 왜? = 지난 15일 밤 10시26분께 곡성군 겸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서 곡성 모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가 급성 간질환자인 A씨를 태우고 가던 중 곡성 119 안전센터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운전기사는 곡성 모 병원에서 A씨를 태우고 광주 조선대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다.

119 안전센터는 신고를 받고 10분만에 출동, 응급처치한 뒤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가 피를 토한 뒤 심정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엔 제세동기·산소통·혈압기·구급약품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정작 반드시 동승해야 할 전문 의료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운전기사만 탑승하고 있었다.

병원측은 "병원에서 출발하기 직전 의료진이 A씨를 대상으로 맥박·혈압·심장을 체크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서 "(A씨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곡성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병원측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러고도 응급환자 이송? = 부실한 응급이송체계가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국정감사 때마다 끊이질 않는다.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점 중 하나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감사원이 내놓은 소방방재청(2009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이송기관에서 보유한 구급차 수는 모두 5711대(특수 1864대, 일반 3847대)이며 응급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는 모두 5599명(1급 2729명, 2급 2870명)이다.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응급구조사는 1만4892명에 이르지만 정작 현장에는 37.5%만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전남 병원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구급차엔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의료진 혼자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심장부위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하고 심폐소생도 해야 하는데, 혼자선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곡성 = 김계중기자 kjkim@

"란제리 술시중은 풍기문란"
서울행정법원

지난 2011년 초 업주 이모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무궁화 4개짜리 호텔에 대형 유흥업소를 차렸다.

호텔 두개 층을 차지하고 서른 개 가까운 방을 갖춘 이 업소는 접객원이 손님 앞에서 상의를 탈의,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유흥을 돋우는 것이 특징이어서 '란제리 클럽'이라 불렸다.

하지만 유명세를 탄 이씨 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설상가상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받자 이씨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법률상 허용된 유흥주점 영업에서 접객원에게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시중을 들게 하더라도 이를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나우챔 〈8797〉 김종두

전남 서·남해안 실종자 최다

섬 많고 조류변화 심해 사고 잦아

전국에서 각종 해양사고로 실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서·남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이 많고 조류 변화가 심해 해상 사고가 잦은데도 불구, 실종자 발생 시 현지 기상여건과 다른 업무 등을 이유로 1~2주 정도 수색에 나섰다가 중단하고 있는 점도 실종자 수 증가에 한몫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16일자 6면 참조〉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년2개월간 전국 해양사고 실종자 수는 모두 386명이다. 이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통영·여수·울산·창원)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는 133명(34.4%)으로 4개 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지방해양경찰서 등 5개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완도·목포·군산·태안·평택) 107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서귀포) 58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속초·동해·포항) 47명 ▲인천해경 41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16개 해경별로는 통영해경이 45명으로 실종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해경 41명 ▲제주해경 40명 등이다.

목포해경은 37명(4번째), 여수해경은 32명(7번째)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과 완도해경은 각각 24명·4명의 실종자를 여태껏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시각장애인 재활수련회 16일 무등산 문빈정사 앞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 18회 광주시 시각장애인 재활 수련대회'에 참석한 장애인 등 시민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연 900% '살인이자' 악덕 사채업자

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 최고 연 900% 이상의 고리를 받는 등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유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광주시 동구 수기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등을 대상으로 100만~3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최고 912%(법정이자 39%)까지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여성들에게 변제 기일, 이자율을 명시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는가 하면, 피해자 신고로 처벌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여·32)씨의 경우 160만원을 대출받은 뒤 2년간 원금의 5배가 넘는 870만원을 갚았고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C씨(여·42)씨는 240만원을 빌려 2년간 1800만원을 갚고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며 협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힘없는 여성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도 끊임없이 이자를 요구한 악성 추심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정규직 철폐" 기아차 하청 노조원 분신

얼굴·팔·다리 화상 … 생명엔 지장 없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사내하청 노조원이 16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분신을 기도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 김모(37)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 북문 사내하청분회 천막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시도 직후 주변의 동료들이 김씨 몸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공장 내부의 구급차를 이용해 김씨를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씨는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공장지회에 따르면 김씨가 분신을 시도한 장소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 사내하청 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선전 장소로 활용하는 천막이었다. 사건 당시 시각은 교대 근무자들의 출근 시간대로 김씨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라고 외친 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7년여 전부터 기아차에서 근무중이었으며 김씨가 조직부장으로 있는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과 2공장 북문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사내하도급법 폐지, 간접고용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광주공장지회 관계자는 "김씨가 분신을 시도한 이유나 동기를 현재 파악중에 있다"며 "내부회의를 거친 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흑염소 3600마리 불법 도축 업자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16일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축사를 짓고 2년여 동안 흑염소 3500여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53)씨와 곽모(여·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광주시내 보양식 식당 16곳과 건강원 30곳 등에 마리당 40만원 가량을 받고 3598마리(시가 약 14억여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에 전기충격기, 도정용 칼과 냉장고 등 도축 장비를 갖추고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경찰에 신고해?" 옛 여친 납치 감금

쌍나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를 이틀간 납치·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모(44)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 A(여·29)씨를 흉기와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북과 광주 일대를 끌고 다니며 감금·협박했다는 것.

○…강씨는 A씨가 최근 납치·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광주의 한 모텔에서 기지를 발휘해 탈출한 A씨의 신고를 받고 강씨를 검거.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32902	1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96번길 1, 101동 2층 203호 [봉선동,봉선동대화아파트] 134.08㎡	아파트	182,000,000 182,000,000	임차인있음
2012타경33295	1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0 유창허니문맨션 2차아파트 101동 2층 209호 59.73㎡	아파트	82,000,000 82,000,000	
2012타경33424	1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209, 4층 407호 58.05㎡	아파트	53,000,000 53,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2타경23083	1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228-1 660㎡	대	18,989,400 18,989,400	일괄매각.임차인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공유자서금향지분13분의2전부]
		동소 228-1 67.32㎡ 부속건물 창고,축사,방,광 78.2㎡[현황:소재불명] 퇴비사 42.4㎡[현황:소재불명] 제시외 다용도실 등 8.8㎡[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동소 228-3 97㎡	대		
2012타경28033	1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38-18 69㎡	대	59,247,270 59,247,270	일괄매각.임차인[명의신탁자]있음
		광주광역시 북구 참판로 48-16 1층39.08㎡ 2층36.49㎡ 부속건물 변소 1.51㎡	단독주택		
2012타경29432	2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508-1 650㎡[현:대지][물건번호2: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54,094,000 154,094,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2013타경2663[중복]2012타경20176[병합]
		동소 508-1 149.55㎡ 제시외 창고 42.2㎡	단독주택		
		동소 508-7 360㎡ 제시외 창고 6.2㎡	전		
		동소 509-4 165㎡	전		
2012타경31701	1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607 119㎡	대	110,323,700 110,323,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169 1층44㎡[음식점] 2층44㎡[단독주택] 제시외 음식점일부 등 47.3㎡	음식점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2타경33059	1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 365 509㎡ 동소 365 1호 48.6㎡ 제시외 변소등50.1㎡	대 단독주택	46,006,400 46,006,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29432 2013타경2663 [중복]2012타경20176 [병합]	1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53-9 123㎡[지상소재비닐하우스매각제외]	전	848,700 848,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509-2 1203㎡	전	8,300,700 8,300,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513 1391㎡	전	9,458,800 9,458,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동소 53-11 705㎡	전	4,864,500 4,864,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33165	1	나주시 봉황면 각동리 86 714㎡	전	8,568,000 8,5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39 566㎡	답	7,358,000 7,3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산32 46017㎡	임야	69,025,500 69,025,500	
2012타경34366	1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산1 28621㎡[공유자박경철지분5분의1전부]	임야	23,966,000 23,966,0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목록1,2지상소재분묘을위하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동소 산1-1 252㎡[목록1과지분내용동일]	임야		
		동소 산1-2 417㎡[목록1과지분내용동일]	도로		
		동소 산1-3 65㎡[현:일부도로및전][목록1과지분내용동일]	임야		
2012타경35000	1	화순군 남면 대곡리 646-17 1706㎡	답	25,590,000 25,5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35444	1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산57 27669㎡[지상소재분묘를위하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임야	22,411,890 22,411,890	
2012타경35888	1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74 2231㎡	답	53,544,000 53,5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12타경23083	2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337-1 3962㎡[현:일부전.답][공유자서금향지분13분의2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묘지	32,303,500 32,303,500	지상에분묘수기소재.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2012타경29432	6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53-10 575㎡	대	109,128,900 109,128,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이동가능한냉장고,냉동고매각제외.2013타경2663[중복]2012타경20176[병합]
		동소 53-1 495㎡	창고용지		
		동소 53-1 1층64.44㎡ 16.56㎡ 제시외 작업장및창고 등 96.7㎡	창고시설		
		동소 53-10 소매점 98㎡[현재공장으로이용중임] 제시외 사무실 18.7㎡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5. 1.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5. 8.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